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2015 회계연도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FY2015



www.tcs-asia.org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0년 12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3국 정부가 공동서명한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2015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사무국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
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

FY2015
연례보고서

2015.9 – 2016.8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2015 회계연도 연례보고서

2016년 12월 인쇄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20층 03185
T. +82-2-733-4700 / F. +82-2-733-2525
www.tcs-asia.org
tcs@tcs-asia.org

Copyright © 2016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이 책의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6031000)

목 차



인사말	6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소개	8
I.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11
1. 정상회의	12
1)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12
2)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	13
2. 장관급 회의	14
II. 협력사업 발굴 및 채택 지원	16
정무	
1.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와 한반도” 국제포럼	17
2.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워크숍	18
3. 제4차 한중일 재난구호 도상훈련	19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1. 제1차 한중일 경제 워크숍	20
2. 제1~4차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3국협력” 공동프로젝트 실무회의	21
3. 제4차 한중일 FTA 세미나 및 비즈니스 교류회	22
4. 한중일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자문회의	24
사회·문화	
1. 제2회 한중일 기자 공동취재 프로그램	25
2. 제5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	26
3. 한중일 청년대화	27
4. 제3회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	28
5. 제5, 6회 TCS LOUPE	29
6. 제4회 청년대사 프로그램	30
7.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관악교류	31
공동 프로젝트	
1. 2016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 및 제1회 한중일 공공외교포럼	32
2.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34

III. 여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조정	36
동남아시아	
1. 동남아국가연합 예방	37
2. 제7차 한-아세안 센터, 중-아세안 센터, 일-아세안 센터 사무총장회의	38
유럽	
1.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예방	39
2. 북구각료이사회 사무총장 내방	40
UN 기구	
1. 제7, 8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41
2.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소장 내방	42
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내방	42
4. 유엔국제재해경감기구 사무처장 내방	43
IV.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 수행	44
1. 2015-2016 한중일 3국협력 실적보고서	45
2. 함께하는 한중일	45
3. 2016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	45
4. 2016 한중일 3국 통계집	46
5. 2016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 및 제1회 한중일 공공외교포럼 결과보고서	46

인사말



양허완

양 허우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의 2015 회계연도(2015.9 - 2016.8) 연례보고서 발간소식을 알리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3대 협의이사회 하에서 진행된 사무국 활동을 담은 첫 보고서입니다. 또한 한중일 세 나라가 각각 한 차례씩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시점에서 사무국 설립 5주년을 정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전, 3국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중일 3국 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3국협력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초대 중국인 사무총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역대 협의이사회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신봉길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 초대 협의이사회는 한중일 3국협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무국의 운영체제와 규정을 구상하고 3국협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 이와타니 시게오(岩谷滋雄)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서 제2대 협의이사회는 초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3국협력을 지탱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무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브랜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3대 협의이사회는 진행중인 협력프로젝트를 더욱 개선·보완하여 발전시키는 한편, 3국협력 전반에서 사무국의 참여와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 11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국 정상들의 만남

을 계기로 한중일 협력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사무국은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를 비롯한 12개 장관급 회의와 60여개의 실무자급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한중일 정부간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센다이 강령 워크숍, 공급망연결(SCC) 향상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실무회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자문회의, 동아시아문화도시 관악교류 등 재난관리, 물류, 환경, 지방정부 교류 분야에서 새로운 한중일 협력사업을 발굴·추진시키는 한편, 2016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 및 제1회 한중일 공공외교포럼의 공동개최 등 기존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북구각료이사회와 유엔기구 등 여타 국제기구들과의 교류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세 나라는 금융,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관광, 문화교류, 교육협력, 인적교류, 재난관리 등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인 협력확대를 통해 3국협력이 가진 무궁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정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두 분의 사무차장님들, 그리고 한중일 각국에서 3국협력을 위해 함께 모인 사무국 직원들은 미래지향적인 세 나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무국의 책임과 의무를 마음깊이 새기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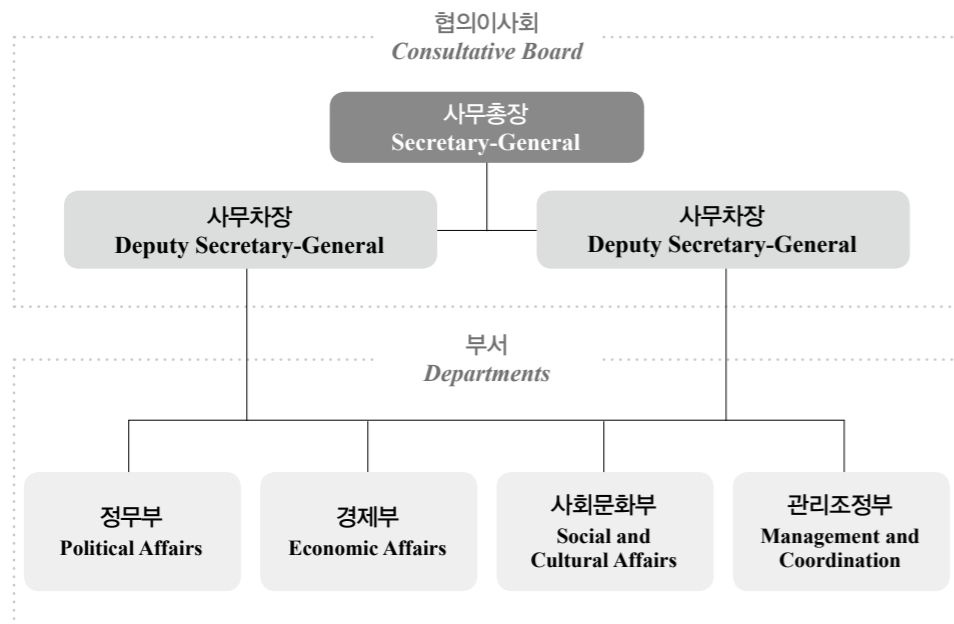
01. 개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일본국(이하 '일본')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각국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 정부가 매년 사무국 운영예산의 1/3씩을 부담합니다.

주요 기능

-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 협력사업 발굴 및 채택 지원
- 여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조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 수행

02. 조직구조



협의이사회

협의이사회는 사무국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중일 각국에서 2년마다 윤번제로 임명되는 1명의 사무총장과 2명의 사무차장으로 구성됩니다.

대수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
1대 협의이사회 2011.9-2013.8	한국	신봉길	사무차장
	일본	마츠카와 루이(松川 るい)	사무차장
	중국	마오 닝(毛宁)	사무차장
2대 협의이사회 2013.9-2015.8	일본	이와타니 시게오(岩谷 滋雄)	사무차장
	중국	천 평(陈峰)	사무차장
	한국	이종현	사무차장
3대 협의이사회 2015.9-현재	중국	양 허우란(杨厚兰)	사무차장
	한국	이종현	사무차장
	일본	우메자와 아키마(梅澤 彰馬)	사무차장

부서

협의이사회 산하에는 3국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과 한중일 각국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된 일반인력으로 구성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정무부

- 외교
- 안보
- 역내이슈
- 국제이슈
- 재난예방 및 관리
- 싱크탱크 네트워크

경제부

- 무역 · 투자
- 교통 · 물류
- 관세
- 지적재산권
- 정보통신기술
- 금융
- 과학기술
- 표준협력

사회문화부

- 문화
- 청소년교류
- 언론
- 교육
- 보건복지
- 관광
- 지방정부교류
- 인사행정

관리조정부

- 기획 · 조정
- 대외홍보
- 인사
- 행정 · 법적지원
- 예산 · 회계
- 기록관리

03. 연혁

- 1999.11. — 3국협력의 시작
제 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최초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필리핀 · 마닐라)
- 2008.12. — 3국협력의 제도화
아세안+3 정상회의라는 기존틀에서 탈피하여 제1차 한일중 별도 정상회의 개최
(일본 · 후쿠오카)
- 2009.10. — 3국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인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인 (중국 · 베이징)
- 2010.05. —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제 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채택
(한국 · 제주)
- 2010.12. —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한중일 3국 정부간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체결 (한국 · 서울)
- 2011.09. — 3국협력사무국 개소 (한국 · 서울)
- 2012.05. — 3국협력사무국 한일중 정상회의 최초 참석
신봉길 사무총장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중국 · 베이징)
- 2013.10. — 3국협력사무국 아세안+3 정상회의 최초 참석
이와타니 시게오 사무총장 제16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브루나이 · 만다르세리베가완)
- 2016.09. — 3국협력사무국 설립 5주년

I.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01 정상회의



1)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2015년 11월 1일, 제 6차 한일중 정상회의(Trilateral Summit)가 3년 반의 공백 끝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하였으며, 양 허우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과 사무국 대표단은 참관인의 자격으로 회의에 배석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협력의 기존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및 역내 문제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한중일 3국 협력체제에서 진행되는 모든 장관급 협의체에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사무국의 역량강화를 지지하는 한편, 한중일 3국협력기금(Trilateral Cooperation Fund: TCF)의 구성이 3국 협력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2)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

양 허우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 18차 아세안 +3 정상회의(ASEAN Plus Three Summit)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 및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은 동아시아 역내평화, 안정, 성장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지역 내 연계성을 증진하자는 데 대해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다양한 국제 및 역내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3년 제16차 정상회의 이래 참관인 자격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02 장관급 회의

정부

제4회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
4th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2015.10.28 일본 · 도쿄
 일본 내각부
 중국 민정부
 한국 국민안전처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8th Trilateral Foreign Ministers' Meeting
 2016.08.24 일본 · 도쿄
 일본 외무성
 중국 외교부
 한국 외교부



경제 · 지속가능한 개발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2nd Trilateral Agricultural Ministers' Meeting
 2015.09.13 일본 · 도쿄
 일본 농림수산업성
 중국 농업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제10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10th Trilateral Economic and Trade Ministers' Meeting
 2015.10.30 한국 · 서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상무부



제15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15th Trilateral Policy Dialogue Meeting between SIPO, JPO and KIPO
 2015.11.17 중국 · 광저우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18th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2016.04.27 일본 · 시즈오카
 일본 환경성
 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보호부



제6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 회의
6th Trilateral Ministerial Conference on Transport and Logistics
 2016.07.28 중국 · 항저우
 중국 교통운수부
 한국 해양수산부
 일본 국토교통성

사회 · 문화

제7회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7th Heads of Personnel Authorities Meeting
 2015.09.01 한국 · 서울
 한국 인사혁신처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일본 인사원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8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2015.11.29 일본 · 교토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 보건복지부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7th Trilateral Culture Ministers' Meeting
 2015.12.20 중국 · 칭다오
 중국 문화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문부과학성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8th Trilateral Culture Ministers' Meeting
 2016.08.28 한국 · 제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문부과학성
 중국 문화부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1st Trilateral Education Ministers' Meeting
 2016.01.30 한국 · 서울
 한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
 중국 교육부



* 참석기관 명칭은 각 회의의 주최국 순환순서에 따라 배열되었습니다.

II.

협력사업 발굴 및 채택 지원



01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와 한반도” 국제포럼



2015년 10월 14일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와 한반도”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International Conference: “The Future of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과 한반도 미래재단이 공동주최한 첫 국제포럼으로, 한중일 3국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지경학적 위험요소와 향후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협력 모델링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포럼 오프닝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반도 미래재단과 함께 토론세션을 구성하였으며, 양 허우란 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환영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02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워크숍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과 유엔국제재해경감기구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방재연구소(UNISDR ONEA-GETI)은 2016년 3월 3~4일 양일간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워크숍(Workshop on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을 서울에서 공동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15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4회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의 후속 프로젝트로, 센다이 강령 이행촉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유엔국제재해경감기구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방재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센다이 강령의 이행사례들을 소개하고, 한중일 및 몽골의 재난관리 관련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각국 대표단이 자국의 센다이 강령 이행현황 및 최근 재해로부터의 얻은 교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또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모니터’의 초안을 적용한 각국의 재난위험 경감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수행하고, 센다이 강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03 제4차 한중일 재난구호 도상훈련



제4차 한중일 재난구호 도상훈련(Trilateral Table Top Exercise (TTX) on Disaster Management)이 2016년 6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안전처가 주최하고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주관한 본 프로그램은 한중일 3국의 재난관리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주요 참여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에 대형 태풍이 온다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2015년 네팔 대지진시 국제구조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3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 재난관리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재난구호 도상훈련을 지속·발전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5차 도상훈련을 2017년 일본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01 제1차 한중일 경제 워크숍

2016년 1월 19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3국의 공동번영-경제협력을 위한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한중일 경제 워크숍(Trilateral Economic Workshop)을 개최하였습니다. 《2015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를 공동편찬했던 3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3국 경제의 회고와 전망” 및 “3국의 공통이슈와 잠재적 협력”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및 Q&A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학생, 여타 국제기구 및 한국의 외교사절단 등 한중일 3국에서 약 5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02 제1~4차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3국협력” 공동프로젝트 실무회의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3국협력” 공동프로젝트 실무회의(Working Group Meeting of Joint Project “Trilateral Cooperation for Improvement of Supply Chain Connectivity (SCC)”)가 4차례에 걸쳐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1차: 2016년 1월 21일, 서울 | 2차: 3월 31일, 도쿄 | 3차: 6월 27-28일, 베이징 | 4차: 8월 18-19일, 서울). 본 프로젝트는 2015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10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주관하고 있는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공동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개최된 4차례의 실무회의에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3국 정부 및 연구기관 간 토론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03 제4차 한중일 FTA 세미나 및 비즈니스 교류회

2016년 4월 7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과 협력 하에 서울에서 제4차 한중일 FTA 세미나 (CJK FTA Seminar)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FTA 세미나는 제10차 한중일 FTA 협상 수석대표회의의 계기 한중일 FTA에 대한 대중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한중일 3국 정부·재계·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약 120여명이 참석하여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의 측면에서 본 한중일FTA의 의의 및 3국협력 발전을 위한 한중일 FTA의 중요성’이라는 의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한중일 각국의 실무협상단 대표인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 홍 샤오둥(洪晓东)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사토 타츠오(佐藤 達夫) 일본 외무성경제부국장이 축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세 대표는 한중일 FTA가 3국의 경제 활성화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진 두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사회자, 발표자, 패널들이 “아태지역의 경제통합과 삼국협력의 발전을 위한 한중일 FTA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세션 후에는 발표자와 청중들간의 심층있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 하면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한중일 FTA가 3국의 대내외적 공동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종현 3국협력 사무국 사무차장은 폐막사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한중일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중일 FTA 협상이 한중일 3국의 상호이익을 가져다주길 기대했습니다.

세미나 이후에 진행된 한중일 비즈니스 교류회(Trilateral Business Networking Reception)에서는 한국 임치성 전국 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 중국 한 루이씨안 주한 중국국제상회 회장, 일본 타카수기 노부야 서울재팬클럽 명예고문 등 한중일 3국의 주요 경영인들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3국협력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04 한중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자문회의



2016년 6월 16일 한중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자문회의(Tripartite Environmental Consultation Meeting on General Public Awareness Improvement)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된 『9대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3국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중에서 “대중의 환경의식 제고”의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중일 3국 정부의 담당부처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식 제고를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가능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사회·문화

01 제2회 한중일 기자 공동취재 프로그램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6년 11월 3일 부터 14일까지 중국 환구시보와 제2회 한중일 기자 공동취재 프로그램(CJK Journalist Joint Interview Program)을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둔 지난 1회에 이어서, 올해는 ‘문화교류와 3국 협력에 대한 각계 인사의 관점’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중일 각국에서 선발된 9명의 기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중국 외교부와 공공외교협회, 일본 국회의사당과 애니메이션협회,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CJ엔터테인먼트를 차례로 방문하고, 방문기간 동안 한승수 전 국무총리,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전 부총리, 루 추안 중국 영화감독 등 3국의 저명인사들과 공동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3국협력의 발전과 전망에 대한 한중일 언론인들의 이해를 돕고, 한중일 협력 관련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고취 및 우호적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02 제5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과 한중우호협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 (Trilateral Campus Harmony)가 2015년 11월 10일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한중일의 대표적인 청년교류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중일 청년들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 3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흥미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중일 학생들로 구성된 9개팀이 “한중일 친구 만들기”를 주제로 한 UCC 동영상을 발표하고, 제작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국 대표단은 본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전래동화로 보는 삼국 간의 영향과 미래”라는 제목의 UCC를 제작한 ‘셋 도깨비’팀에게 사무총장상을 수여하였습니다.

03 한중일 청년대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5년 11월 14일 일본국제교류센터와의 공동주최 및 동아시아재단의 후원 하에 한중일 청년대화(China-Japan-ROK Youth Dialogue)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한중일 대학생 단체인 한국의 GALF(Global Asia Leadership Forum)와 일본의 KIP(Knowledge Investment Program)의 멤버 3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한중일 혼성 팀으로 나뉘어 조기 영어교육의 문제점, 취업문화, 가정과 일의 균형 등 3국의 청년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3국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4 제3회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제3회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rilateral Journalist Exchange Program: TJEP)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은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전통 문화와 역사유산을 간직한 한중일 옛수도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중일 각국에서 선발된 12명의 기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우메자와 아키마 사무차장의 인솔하에 3국의 옛 수도인 교토, 시안, 경주의 정부기관, 기업체, 문화유적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각 도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관광 정책, 경제 활성화 노력, 국제협력 증대에 대한 브리핑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심층적인 대담을 통해 한중일 언론의 현실을 짚어보고 3국협력 강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05 제5, 6회 TCS LOUPE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개강좌 시리즈 “TCS LOUPE(Lecture on Uncovering Panoramic East Asia)”는 한중일 전문가들이 비교적인 관점에서 3국의 주목할만한 요소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2016년 6월 29일에는 한중일 음식문화와 역사 전문가인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초빙하여 “한중일의 맛: 한중일 음식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제로 다섯 번째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8월 4일에는 제4회 청년대사 프로그램(YAP)의 일환으로 “한국일보의 청년리포트르 통한 한중일 3국 청년문화 관찰”을 주제로 한 여섯 번째 강연이 개최되었습니다. 강연자 김정준 한국일보 기자는 한중일 청년 38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06 제4회 청년대사 프로그램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6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및 제주에서 제4회 청년대사 프로그램(Young Ambassador Program: YAP)을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청년대사 프로그램은 한중일 청년 인재들의 3국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중일 공동체 의식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기획된 2주간의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에도 한중일 각국에서 선발된 16명의 우수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청년대사 프로그램은 3국협력 주요분야에 관한 전문가 강연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탐방, 팀별 프로젝트와 문화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학생들은 다양한 한중일 3국관계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더불어, “한중일 안보협력 및 오해의 극복”, “한중일 교육시스템의 비교”, “협력을 위한 과잉민족주의의 극복”이라는 관심 주제에 대한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간동안 학생들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3국 협력의 다양한 방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청년대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한중일 협력을 촉진시키고, 3국 청년들간 우호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07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관악교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6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주에서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관악교류 (Trilateral Ensemble Exchange Performed by the 2016 East Asian Cultural Cities)를 공동개최 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음악축제 중 하나인 제21회 제주국제관악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에는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대표하여 제주의 ‘대정고등학교 관악단’, 닝보의 ‘닝보시립교향악단 관악그룹’, 나라의 ‘다카마도고등학교 관악양상블’이 참가하였습니다. 세 관악단은 다른 국가의 관악단들과 함께 제주문예회관,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등 제주도 내 주요 공연장에서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8월 13일 하모체육공원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음악회’가 개최되어, 한중일 민요를 주제로 한 협연 등 3국의 다채로운 바람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01 2016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 및 제1회 한중일 공공외교포럼

2016년 4월 29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중국 공공외교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북경 다오위타이 국민관에서 2016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 및 제 1회 한중일 공공외교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 (IFTC) 2016 and the 1st Trilateral Forum on Public Diplomacy)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화과 소통 증진을 통한 한중일 협력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간 이해와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한중일 808 공용한자”를 주제로 한 미술품 전시도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은 크게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한중일 공통분모를 찾아서 - 동북아 평화·안정 및 세계번영을 위한 3국협력”이라는 주제로 이와타니 시게오 3국협력사무국 제2대 사무총장 주제 하에 역내 정치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역사문제 재인식, 지역 내 새로운 안보레짐, 한중일 의회 교류, 한반도 이슈 등 다양한 정치·안보 관련 주제들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한중일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잠재력 - 3국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주제 하에 한중일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3국의 경제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한중일 경제협력에 대한 전망 및 여러 제언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한중일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을 위한 인적 및 언론 교류의 중요성”을 주제로 3국간 인적교류 증가에 따른 상호이해 증진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 여성교류, 한중일 공동신문 편찬, 유럽연합 사례학습 등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6년 5월 25일부터 27일 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에 참여하여 3국협력을 주제로 두 개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의 시각: 동북아 지역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한중일 원자력 규제 기관의 대표들은 각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원자력 관련 규제 및 법률, 원자력 안전문화 등을 소개하고,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한중일 3국협력 및 양자협력의 최근 발전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8년 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Top Regulator’s Meeting: TRM)를 기반으로 향후 원자력 안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동아시아 관광시장의 새 지평: 3국협력을 통한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에서는 한중일 3국의 관광 관련 정부 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이 세션 발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동북아 역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한중일 관광 협력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한중일을 외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다구간 여행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세션은 유럽 및 북미에서 오는 관광객 증가를 위해 제7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Trilateral Tourism Ministers’ Meeting)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동아시아 방문 캠페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III.

여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조정



01 동남아국가연합 예방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양 허우란 사무총장은 2016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알룬케오 키티쿤(Alounkeo KITTIKHOUN) 라오스 외교부 차관 겸 동남아국가연합(이하 '아세안') 차관보를 예방하고 아세안+3 협력 발전을 위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또한 르 르영 민(Le Luong MINH) 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3국의 공통 이슈와 관련하여 두 사무국 간 세미나 또는 워크숍의 공동주최 등 협력가능한 프로젝트를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방문기간 동안 사무국 대표단은 주 아세안 한중일 대표부를 예방하여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간 파트너십과 한중일 3국협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02 제7차 한-아세안 센터, 중-아세안 센터, 일-아세안 센터사무총장회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양 허우란 사무총장은 2016년 4월 19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아세안 센터, 중-아세안 센터, 일-아세안 센터 사무총장회의(Meeting among the Secretaries-General of ASEAN-China Centre, ASEAN-Korea Centre and ASEAN-Japan Centre)에 참석하였습니다. 양 사무총장과 김영선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양 시우핑(杨秀萍) 중-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후지타 마사타카(藤田正孝) 일-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등 세 기관장은 기존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해 추진가능한 향후 협력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먼저 세 센터가 사무국을 회의에 초청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사무국이 사회문화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과 세 센터가 청소년 교류 및 언론인 교류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세 센터장은 사무국이 센터간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사무국과 세 센터는 향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담당관 또한 지정하였습니다.

유럽

01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예방



2015년 10월 5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3대 협의이사회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를 예방하여 게하드 사바틸(Gerhard SABATHIL) 주한 유럽연합 대사와 한중일 3국협력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양 허우란 사무총장과 사바틸 대사는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관계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사무국과 대표부간의 교류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FTA, 한중일 교육 협력 등 3국협력 관련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02 북구각료이사회 사무총장 내방

2016년 5월 30일, 다그 핀 회이브로텐(Dagfinn HØYBRÅTEN) 북구각료이사회(NCMs) 사무총장이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을 방문하여 사무국 협의이사회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북구각료이사회는 2012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IFTC)에 참석하여 처음 사무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이번 방문은 양 기관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사되었습니다. 회담에서는 상호 기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호혜적 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무국과 북구각료이사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주요소식 및 출판물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협력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UN기구

01 제7, 8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5년 10월 28~29일과 2016년 8월 21~22일 서울과 북경에서 각각 개최된 제7, 8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UNGC China-Japan-Korea Roundtable Conference)에 공식후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는 2009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중국협회, 일본협회가 매년 윤번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한중일 기업인, 학자,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대중인식과 글로벌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내용 면에서도 많은 제안과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02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소장 내방

2016년 3월 9일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UNESCAP-ENEА)의 킬라파티 라마크리슈나(Kilaparti RAMAKRISHNA) 소장이 사무국을 방문하여 두 기관의 상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역내 경제통합과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 있어서 두 기관이 많은 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0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내방

2016년 3월 15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정우탁 원장과 권오우 강원도청 장학사가 사무국을 방문하고 양 허우란 사무총장과 함께 향후 사무국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우탁 원장과 권오우 장학사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강원도의 한중일 교육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고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04 유엔국제재해경감기구 사무처장 내방

2016년 7월 20일 키르시 마디(Kirsi MADI) 유엔국제재해경감기구(UNISDR) 사무처장이 사무국을 방문하여 우메자와 아키마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과 재해위험 경감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각 기관의 최근 활동을 소개하고 기존에 진행해 온 협력프로젝트를 점검하는 한편,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노력 및 “2015-2030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이행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센다이 강령 이행 촉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IV.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 수행



01. 2015-2016 한중일 3국협력 실적보고서 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한중일 3국협력 실적보고서》는 각 분야에서 진행 중인 3국협력의 발전상황에 대한 개황을 연례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되고 3국의 공동승인을 거쳐 출간됩니다. 현재까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모두 5차례 실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최근에 발간된 5차 보고서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3국협력 관련 활동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2. 함께하는 한중일 CJK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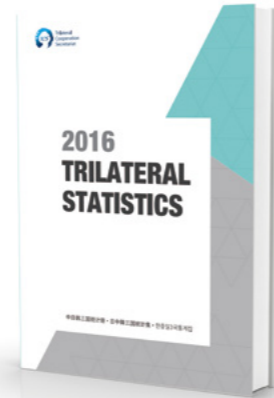
《함께하는 한중일》은 3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협력분야의 최근자료와 중요한 사실들을 전달함으로써 3국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일반대중들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여 수치를 보여주고, 한중일 3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03. 2016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 Trilateral Economic Report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는 한중일 각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통합과 관련된 최신 연구자료를 수록한 사무국의 정기 출판물입니다. 2016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연구원,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웨이 지강 연구원, 일본 가쿠슈인 대학 이토 모토시게 교수 등 3명의 한중일 학자에 의해 공동편찬되었으며, 한중일 각국의 거시경제현황 및 무역, 투자, FTA, 산업 분야에서의 3국협력 현황과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04. 2016 한중일 3국 통계집 Trilateral Statistics

《한중일 3국 통계집》은 한중일 각국의 경제현황 및 3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데이터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서적은 한중일 각국의 거시경제, 인구, 교통, 자원 등 전반적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역내무역 및 투자, 인적이동 등 3국의 경제관계를 담고 있으며, 3국 경제의 상호의존성 및 지역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05. 2016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 및 제1회 한중일 공공외교포럼 결과보고서 Outcome Report of 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 (IFTC) 2016 and the 1st Trilateral Forum on Public Diplomacy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 결과보고서》는 2011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IFTC)의 성과를 담은 정기출판물입니다. 이 보고서는 3국협력을 위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정계·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안받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안을 모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의 잠재적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됩니다.

